

1

방 하 세 선생

(전 북한 중앙정보부 내부상)

방 하 세 선생은 1914년에 원동변강 연해주
보시예트 구역 바라눔까촌 배농원의 가정에서
태어 나시었다. 향촌에서 인민학교와 초급을
마감하신 다음 군행정 소재지인 노보끼예
스크 국립 소도시에서 9년제 공학을 1931년
에 마감하시었다

바로 동년 가을에 스웨드롭스크 국립 종합대
학 예과에 입학하여 일년 동안 주로 하신 다음
동 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여 5년간 공부하신
다음 1937년에 필하시었다.

대학을 최우등 성적으로 졸업하신 방 선생은
(본명 방 나골라이 이그나지예비치) 동년에
원동으로부터 한인들이 강제이주당하여 카자흐
스탄과 중앙아시아에 실려 온 것을 원인으로 카자흐
스탄 크를몰라시에 파견받아 시검찰소 예심
원으로 2년간 일하신 다음 또 검찰소에 전근

되어 1940년도까지 예심원으로 일하^한~~셨다~~
~~다음~~도 부검사로 전직되어 1942년까지 일하시
였다. 1942년 시월에는 카자흐스탄 검찰
부르간주 책임 검사로 영전되어 1944년
까지 일하시었다.

이시기에 전체한인들은 강제이주민이라 하여, 각 행정, 정치, 내무기관들에 ~~잘~~ 등용하지 아니하였으나 방학세 선생은 개성이 개국화체고 아주 총명하신, 또도 준비된 간부로서 검찰기관에 ~~차도~~ 잘 등용되시었다

1944년 10월에는 방학세 선생이 다시 권근되어 코슬몰다주 책임직사로 이동되시었다. 이것은 코슬몰다주가 랴드디꾸르간주에 대하여 그비중이 아주 방대하였기 때문이다.

1945년에 조선이 해방되자 1946년에는 전 소련적으로 준비된 한인 인재들을 선발하여 북한에 파견하게 되었다. 이에 의하여 방학세 선생은 당중앙 위원회의 파견에 따라 국제공산당 의무 수행목적으로 북한에 파견되었다. 당시 북한에는 소련군 25군단이 치스다야꼬브 대장의 지휘하에 주둔하였으며, 소련군 총참모관 네꼬 (중장의) 지휘하에 인민사령부가 조직되어 있으면서 인민정복 각성, 부서, 각 정당 사회 단체 등을 통솔, 거역-지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안전부, 사회 안전부는 소련군 대좌 최자진이 지도하였던바 방학세 선생은

바로 이때에 보자긴 대좌의 복책이라곤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퇴할시-즉 1948년 말까지 일하시였다. 소련군이 철퇴하라 방학세 선생은 내무성 복상으로 함일추행용사 박일우 내무상과 무척 관계가 깊었다가 박일우 선생의 죽음으로 내무상 직위에 취임하여 1958년까지 일하시였다.

방학세 선생은 소련에서 북한에 귀국되어 일하게 된 그 첫날부터 시작하여 보자긴 대좌의 보좌관 때나, 내무성 복상 때나 또 내무상으로 일할시에 북한 지도자 김일성의 가장 신임받은 신복자로 김일성이 수만 명의 애국 혁명자들을 처단한 그 모든것의 허나하나가 방학세 선생의 손으로 통하여, (그가 때로는 모르고 지냈다고 해도) 실현된 것이기에 전세계에 분포하여 살고있는 전 북한 출신 한민들은 누구나 다 할것없이 방학세 선생을 무르한 학살자라고 인정하고 있다. 사실 방학세 선생은 아주 선량하고, 양심에 가득찬 간부였지만 김일성의 명령을 지고, 굴레를 쓰고 있다 보니 (후레기들) 그저 할수없이 "하타는대론 한 모양이다. 모스크바에 와서 계시던 전 북한 정권 대사 리상조 씨는 김일성에게 쓰는 편지에 방학세를 당장 처포하여 재판에 회부하여 처단

하이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방학제 선생은 김일성 신북파로써 북한의
 정치적 위기의 혼란속에서든 오래 동안 고위직에서
 근무하여 내리면서 ~~제대~~하였다. 그는 사실 자기의 원주
 인 허가이 ^{12도} 사건, 리익선의 ^{생매장} ~~사건~~ 사건, 박
 현영이나 리흥업의 허위난조 사형사건등을 잘
 알았으나 어찌 할수 없었을 것이다.

방학제 선생은 내륙상 직부에서 최고 재판소
 직부에 임명되어 넘어가 신후 1965년 이후 연
 금생으로 넘어가 목적으로 제시한 허가이
 현재 전후소속이다.

방학제 선생에게는 현재 유근백 공화국이
 하류계는 주, 중립적 실험농장출이 당국이
 방 이리나 1916년 생이 생전에게서고,
 동생 방 와실리 이노견지비회가, 갈디
 각은 간주, 가라불라코 출에서 연금생활을
 하고 계시는 바 그의 현재도 현재 소속이다.

방학제 누이 어리나의 재를 정리